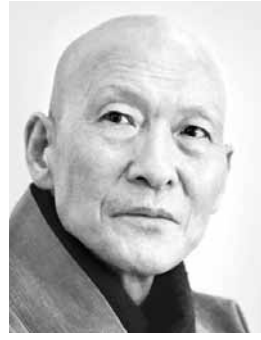


山房에서 길을 물었더니 희망의 '오솔길' 열리네

〈산방〉



법정 스님
 마른갈대 서 있는 건
 어린 갈대가
 스스로 설 때까지
 받침대가 돼주기
 위함 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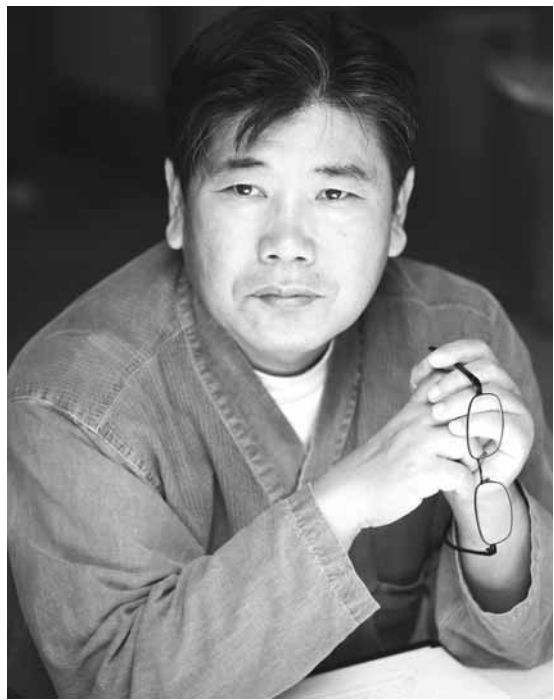


이해인 수녀
 투병이라는 말 싫어요
 내게 찾아온 암은
 불편한 손님일 뿐이죠
 초록비 내리는 날
 청정심 얻어 갑니다



최인호 작가
 벽에 걸어주고 간
 벽시계는
 아직도 내게
 게으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정찬주 소설가 '길 끝나는 곳에...' 퍼내
 법정·이해인·박완서·최인호 등과
 화순 이불재 산방에서 나눈 이야기 담아
 "삶 고달픈 이들에 희망의 불쏘시개 되기를"



정찬주 작가

"스님, 갈대들이 병치레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마른 갈대를 보면 사람보다 더 기특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마른 갈대는 작년에 자랐던 것들이지요."
 "그런데 왜 아직 서 있는 건가요?"
 "어린 갈대가 스스로 설 때까지 받침대가 돼주기 위해 서어요."
 "아 그렇군요."
 "어린 갈대가 더 자라면 마른 갈대는 스스로 넘어지지요."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중에서)

보성 출신 정찬주(64) 작가가 생전의 법정 스님과 나눈 대화 일부분이다. 어느 해 숲속의 오솔길을 걷다가 갈대가 무성히 자란 곳을 지났던 모양이다. 어린 갈대 사이에 마른 갈대들이 삐죽삐죽 서 있는 게 보여, 작가는 스승인 법정 스님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갈대는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였다.

화순 상봉사 인근에서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 이해인 수녀, 박완서·최인호 작가 등과 나눈 산방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황금이야기)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산중의 모습, 선배 문인들과의 인연, 지나온 삶의 기록들이 정감어린 필치로 기록돼 있다.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정 작가는 "책을 내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출판사 하는 후배가 불러 왔다 메모해뒀던 글들을 보고 책을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방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갔다. 선배 문인들 외에도 임권택 감독님, 원각스님 등은 나에게 생을 같이 들

여다보게 하신 분들"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그는 "여기저기 방치해 두었던 글들을 모으니 산중생활 16년 동안 걸여온 흔적들이 조그만 오솔길을 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라는 애기애타(愛己愛他)를 당부한 말도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16년 전 서울 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천강에 비친 달' 등 불교적 사유가 밴 소설과 산문으로 고정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작가다. 그동안 작가는 "솔바람에 귀를 씻어 불(佛)을 이루리라"는 뜻에서 '이불재(耳佛齋)'라는 집을 짓고 수양과 글쓰기에 전념했다. 요즘 들어 그는 집 이름의 의미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빛진 것을 갖아야 할 나이가기 때문"이라며 "찾아온 손님들에게 차를 우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이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책에는 그렇게 이불재를 찾아온 이들과 나눈 이야기,



단상 등이 기록돼 있다. 2009년 산방을 찾아온 이해인 수녀는 "초록비 내리는 날 초록비 마음으로 이불재에서 향기로운 '다향심'을 마시며 평상심, 청정심을 얻어 갑니다"라고 방명록에 썼다.

정 작가는 당시 "수녀님이 이 불재를 오셔서 다른 두 분의 수녀님을 가리키며 자신들은 '암 트리'라고 소개했다. 세 분 다 여고생처럼 아무 것도 아닌 얘기에도 까르르 웃을 만큼 명랑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수녀님이 나는 투병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암과 싸운다는 말이 맘에 안 들어요. 암은 불편한 손님일 뿐"이라고 한 데서 진짜 수도자임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최인호 작가가 벽시계를 선물했다는 얘기도 들려준다. 최인호는 "불교에 대한 문(門)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정찬주"라고 말할 정도로 막역한 인연이 있었다. "벽에 걸어주고 간 시계는 아직도 내게 게으르지 말기를 충고하고 있다"고 작가는 자신을 낮춘다.

책 제목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는 정 작가의 생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즉 길이 끝나면 눈에 보이지 않은 길이 또 있다는 것이다. '길 없는 길'과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생 공부 몇 십년, 미흡하나마 자각한 바가 있다면 길 끝나는 곳에 반드시 다른 길이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삶이 고달픈 이들,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격려인 듯 하다.

정 작가는 '인과(因果)'란 질량불변의 법칙과 동의어로써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선의지를 싹틔우는 삶,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지향하고 싶다고 한다.

"화목난로에 불을 붙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땀값이 아니라 불쏘시개다. 불쏘시개가 있어야만 장작에 불이 붙는다. 내 하는 일도 누군가의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글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에 환한 불을 지펴주는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한아 가야금독주회 '가운회상'



7일 전남대 예술대 지음홀

김한아(사진) 가야금독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 전남대 예술대 지음홀에서 열린다.

7번째 독주회인 이번 연주회에서 들려주는 곡은 '가운회상'이다. '가운회상'은 풍류음악의 대표곡으로 불리는 '현악영산회상'(상령산·중령산·세령산·가락달이·상현 도드리·하현도드리·타령·군악)을 중심으로 중간에 웃도드리와 돌장, 천년만세를 첨가한 작품으로 '여러 곳을 모두 갖춘 영산회상'이라는 의미다.

전남대 국악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차석으로 활동중이다. 전남대 국악학과 겸임교수, 광주예고 강사, 광주가야금 연주단 부단장, (사)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제 6회 한밭가야금경연대회 최우수상, 제15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2992-5398. /김미용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을 노래하는 '우리가곡 부르기'

9일 강숙자오페라리인



가을 내음 물씬 나는 가곡을 만난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가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자오페라리인 연주홀에서 9월 행사를 갖는다.

'가을 그리고 강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 그리고 강물'의 작사가 임승천 시인(사진)을 초청, 임 시인이 가사를 쓴 가곡을 배우고 함께 부른다. 임 시인은 135곡의 가곡시를 써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추억의 노래로 나주출신 고(故)안성현의 '엄마야 누나야', '부용산'을 부르고 두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가을동요 '가을길', '아 가을인가', '코스모스를 노래함'을 다 함께 부른다.

꿈나무 연주로 신은지(일곡중 3)양

이 '신아리랑'을 부르며 회원 고광덕, 박남숙, 이상협, 정경숙 씨가 '꽃밭의 아버지', '서늘에 내리는 비', '그리운 사랑아', '남이 오시는지' 등을 선사한다.

두엿 연주도 이어진다. 서울에서 온 이상협·박남숙씨가 '그대는 그날'을, 우리가곡운영위원 김종석과 김희숙 씨가 '나 그대 사랑해요'를 부른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용기자 mekim@kwangju.co.kr

도립국악단, 제3기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강습

전라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제3기 '우리가락 우리춤 배우기' 강습을 오는 22일부터 12월 8일(매주 목요일)까지 실시한다.

남도소리유희터에서 진행되는 강습은 4시, 7시 두 차례 진행되며, 판소리(박춘명), 남도민요(이현미), 장고(정기연), 한국무용(안지선), 대금(윤삼

현), 시조(대한시조협회 광주지부장 이미화) 등 6개 반이 운영된다.

강습신청은 21일까지이며, 수강료는 6만원(3개월)이며 남도화원 1만원 할인(본인), 풍류회원 2만원(본인 포함 2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1-285-6928.

/김미용기자 mekim@kwangju.co.kr

서은문병란연구소, 가을학기 시창작교실 개강

(사)서은문병란연구소가 가을학기 시창작교실을 개강한다.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동구 지산동 소재 서은문병란연구소에서 매주 수요일(오후 3시 30분~5시 30분) 진행되는 이

번 창작교실은 실기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 강사는 전 목포대 교수인 허형만 시인(사진).

허 시인은 이번 창작교실에서 시 이론의 실제, 시 창작의 실제, 수사와 이미지, 운



학과 퇴임한 이후 만든 연구소로 시창작과

율과 리듬 등 다양한 창작 이론을 실기와 접목해 강의할 예정이다.

서은문학연구소는 고 문병란(1934~2015) 시인인 조선대

연구, 학술활동을 전개해온 문인단체다. 문병란 시인을 기리는 추모기념사업과 5·18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강연을 맡은 허 시인은 순천 출신으로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했으며 '비 잠시 그친 뒤' 등 다수의 작품집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